

# 취업난 속 '학위 취득 유예제' 인기 시들

### 한때 4명 중 1명 졸업 유예 '대학 5학년' 증가 '취업 도움 안 돼' 인식 확산에 최근 지속 감소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는 학위 취득 유예제를 이용하는 학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장기 미취업 상태를 우려해 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는 '대학 5학년' 학생들이 한때 증가했지만,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3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학위 취득 유예자는 2012년(2011학년도) 911

명, 2013년 1천19명, 2014년 1천215명 등이었다.

정점을 찍은 2014년에는 졸업생 4명 중 1명 이상이 졸업을 미뤘다.

그러나 2015년에는 1천126명, 2016년 1천10명, 2017년 764명, 지난해 707명 등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조선대도 2015년(2014학년도)에 1천45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가 2016년 1천50명, 2017년 782명, 2018년 693명 등

으로 줄었다.

학위 취득 유예제는 이수 학점 등 기준을 충족하고도 졸업을 미루는 것이다.

소속 없는 취업 준비생보다는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게 취업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학생 입장에서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제도 등을 활용할 기회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졸업을 유예해 채용에 혜택을 보거나 반대로 졸업생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졌다.

졸업을 늦춰봤자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

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전남대의 경우 졸업 유예생에게 등록금의 8%를 지급하도록 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 각종 평가에서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으로서도 졸업 유예생이 늘어나는 것은 달갑지 않다.

전남대 4학년 이모씨는 "졸업 유예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건 동료나 선배들 사이에서 다수 의견일 뿐 아니라 취업 설명회에 가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라며 "졸업을 하거나, 안 하나 취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상황도 졸업 유예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 남구청-캠코, 리모델링 비용 놓고 갈등 캠코 "비용 돌려달라" vs 남구 "책임 없어" ... 감사결과 주목

광주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00억원대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감사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2011년 5월 지금 청사인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캠코는 300억원을 들여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해주고 지하 1층-지상 4층의 임대권을 얻었다.

향후 22년간 임대사업 수익으로 투자금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지상 9층 규모의 남구청사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유통업체 '메가아웃렛'이, 지상 4층에는 가구백화점이 입주했다.

남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당시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사업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이 캠코에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는 캠코 측에 22년간 위탁 운영권을 줬고, 그때까지 투자금 회수가 안 되면 5년은 더 연장해주기로 계약을 했다"며 "원칙대로 임대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임대가 잘 돼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캠코에서 가져가게 된다"며 "반대로 임대료가 안 됐을 땐 그 책임도 캠코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반면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면 남구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최근까지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달께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별세

### 광주·전남 유일 피해자... 남은 생존자 22명 힘든 삶 살았으나, 끝내 일본 사죄 못 받아

광주·전남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곽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4세.

지난 1월 28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3일 만이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곽 할머니의 빈소는 전주병원 장례식장 VIP실 별관 특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4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천안 망향의동산에 마련된다.

곽 할머니는 1925년 담양에서 2남 4녀 중 3녀로 태어났다.

1944년 봄, 동네 여성 5명과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다가 일본군 순사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만 열 아홉의 나이였다.

중국으로 끌려간 곽 할머니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군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루에 세 차례씩 방에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해 도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풀려난 곽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구걸하는 삶을 살다가 안후이 성 숙주에 정착했다.

60여년을 중국에서 살면서도 조선 국



광주·전남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2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지난 1월 28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3일 만이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전주병원 장례식장 VIP실 별관 특실에 차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동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 나누는 곽 할머니. /연합뉴스

적을 바꾸지 않는 등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다.

이후 한 방송사의 공익예능프로그램과 한국정신대연구구 도움으로 2004년 국적을 회복하고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기쁨도 잠시, 곽 할머니는 2015년 12월 폐암 4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 병환이 더 진전되지 않아 3년이 넘는 선물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페이스북을 통해 곽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면서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머물면서 고국의 국적을 버리지 못하고 힘든 생을 어렵게 버텨내셨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사죄 한 마디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의연은 "(곽 할머니는) 힘든 삶이었으나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내셨다"며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내신 삶,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전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봄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지역 잇단 안전사고로 4명 사상

2일 광주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경상을 당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고물상에서 소형굴삭기를 운반하던 차량용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가 났다.

끊어지며 튕겨 나간 와이어에 작업자 A(60)씨가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날 낮 12시 52분께 광주 동구 용산동에서는 도색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페인트의 유증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현장은 지하 3m 깊이에 설치된 상수도관 안으로 작업자 3명은 상수도관 안을 도색하는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상수도관 내부에서 작업자 3명을 구출했고, 이중 1명을 병원 이송했다.

나머지 2명 작업자는 현장에서 깨어나 병원에 이송되지 않았다.

경찰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도경·서기만 기자

## 여수해경, 바다 빠진 저체온증 환자 이송

해경이 바다에 빠진 저체온증 환자와 연료 고갈 선박을 잇달아 구조했다.

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11시 19분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송고항 방파제에서 바다에 빠져 저체온증을 호소한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정 등을 급파, 응급환자 A(51·여)씨를 태워 육지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금오도에 놀러와, 홀로 바람을 쐬려 방파제를 건너 중 발을 헛디뎈 바다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선 오후 3시 51분께 여수시 금오도 대유항 동쪽 200m 해상에서 25마력 100kg 소형고무보트가 연료가 떨어져 표류 중이라는 선장 B(43·남)씨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2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는 바다낚시를 하던 중 연료가 떨어져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돌산 해경파출소 구조정은 약 1시간에 걸쳐 고무보트를 예인해 돌산 신기항에 안전하게 입항 조치했다.

/여수=오승택 기자 ost6002@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